

## 장생포 새뜰마을에서 “예술계의 젊은 별들을 만났습니다.”

장생포 신진여인숙, 폐허가 된 공간의 생명을 창조하는 「창·생·전(蒼·生·前)」 개최

장생포 마을이 젊은 예술가들로 북적입니다.

구.동사무소(장생포고래로 131) 뒤편 언덕에 위치한 구.여인숙은 고래잡이가 한창이던 시절 장생포를 찾는 사람들이 묵었던 곳입니다. 이곳은 1972년 건축되어 '신진여인숙'이란 간판을 달고 운영하다 10여년 전 폐업해 방치되어 왔습니다.

23개의 객실로 구성된 '신진여인숙'은 방 한 칸이 한 평 남짓한 독특한 내부구조 및 숙박요금표, 간접 구별하는 법 등 사용 당시의 흔적이 잘 보존돼 있습니다. 장생포의 역사성, 장소성을 간직한 '신진여인숙'에서 지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울산 청년창작자 28개팀의 실험적 예술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창·생·전(蒼·生·前)」이라는 이름의 이 전시회에서 청년창작자들은 신진여인숙 공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여인숙에 꽂 차 있던 물건들을 예술적 도구로 활용해 음악, 댄스, 미술, 영상 등 다채로운 장르로 재해석했습니다.

전시회 이후 신진여인숙은 본격적인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가 장생포의 새로운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1층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카페와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2층은 예술가들이 작품활동을 펼치고 전시하는 아트스테이로, 마당과 옥상은 공연과 행사를 열 수 있는 이벤트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 장생포 새뜰마을 사업은 장생포 새뜰마을 사업은 '주민 모두가 같이 만드는 가치 있는 삶의 터전'을 목표로 2018년까지 약 8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안전확보, 생활·위생인프라 구축, 주택정비지원,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 등 총 5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7년 11월 22일, 장생포 새뜰마을 구. 여인숙 아트스테이 「창·생·전」 현장



## 장생포 새들마을, 그간의 이야기

### 소방도로 1구간(소로3-336호선) 준공

그간 도로가 없어 고층을 겪었던 장생포동 28통 지역에 소방도로가 개설되고 도시가스가 공급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소방도로 1구간 개설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 길이208m 폭 6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사업이며, 지난 11월 3일 장생포 주민들의 열렬한 성원하에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도로 종점 부에는 장생포 사람들의 삶을 스토리텔링 한 소설 '환상의 섬'을 주제로 한 그림타일 벽화를 설치해 마을의 정체성을 살렸고, 삭막한 경관을 개선하여 고래문화특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8통 주민들은 "도로가 생기면서 마을에 가로등이 밝혀지고, 택배 차량과 택시가 대문 앞까지 들어온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방도로 1구간 공사 전



소방도로 1구간 공사 후



배수로 정비 공사 전



배수로 정비 공사 후

### 위험지역 및 배수로 정비 공사 완료

토지보상 관계로 답보상태에 빠졌던 신위당(장생포고래로 179번길 일원) 인근의 배수로 정비공사가 1년여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그간 토지소유자간 의견 차이로 보상에 난항을 겪었으나 구청관계자, 주민들이 토지소유자들을 수차례 만나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끝에 토지보상 작업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정비 전 이 지역은 방치된 쓰레기로 악취가 진동했고, 지네, 파리 등 해충이 들끓어 주민들의 고충이 무척 컸습니다. 이번 공사로 배수박스가 설치되고 보행로가 조성되며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재해예방사업 공사 완료

한백트레이딩 뒤편 장생포동 147-1번지 일원 산사태 위험지역의 재해예방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경사지가 무너지며 집을 덮치는 등 주민 피해가 크게 발생한 지역이었으나 이번 공사로 안전과 편의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재해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해예방사업 공사 전



재해예방사업 공사 후

### ◉ 한국동서발전, 장생포경로당 운동서비스 지원

한국동서발전(주)은 지난 10월부터 장생포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역인 장생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해 뇌신경체조, 치매예방체조, 걷기운동 등 '뇌인지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교육은 울산 최초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인 '헬스디자인(주)'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운동서비스는 2018년 3월까지 매주 2회씩 장생포경로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장생포경로당 어르신 운동서비스

### ◉ 소방도로 2구간 개설공사 손실보상 협의 진행 중

장생포 우체국 뒤편 소방도로 2구간(소로1-85호선 외 2개노선)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한창입니다. 지난 9월 25일 토지 및 지장물 소유주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였고, 11월 15일 2차 협의 통지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보상 협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작

장생포마을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공영주차장이 조성됩니다.

현대해업 맞은편 장생포동 204-1번지 일원의 3,932㎡(약1,189평) 부지에 127면 규모로 조성되는 공영주차장은 내년 2월경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공영주차장 또한 배수로 공사와 같이 토지보상 문제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까지 갔으나 구청관계자와 주민협의회,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을 무사히 마무리하였습니다. 공사는 공정대로 순항 중입니다.



새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현장일기

## 장생포 새들마을 주민협의회, 부산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다.

남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박선영 기자

지난 9월 21일 장생포 새들마을 주민협의회 회원 25명이 주민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돋이마을과 사하구 감천문화마을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첫 방문지인 해돋이마을은 장생포마을과 지리적 환경이 비슷한 곳으로 바다를 내려다보는 경관과 산 아래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해돋이마을 활동가의 안내에 따라 회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마을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길과 가파른 비탈길을 따라 마을의 체험교실과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사용하는 '해돋이행복나눔터', 도심 속 자연 친화형 텃밭인 '자연생태학습장',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려진 '벽화길'도 만나고 부산항대교를 내려다 볼 수 있는 '해돋이 전망대'에도 올랐습니다.

해돋이마을 주민협의회에서 직접 준비한 비빔밥을 맛있게 먹고 정승창, 임기현 마을활동가에게 해돋이 새들마을 사업 현황과 집수리 사업에 대한 강의도 들었습니다. 회원들은 "우리 마을도 주민들이 함께 뭉쳐야 해..." 하라며 해돋이마을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두 번째 답사지로 감천문화마을에 다녀왔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천문화마을은 이미 많은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주민해설가로 활동하시는 어르신께서 직접 저희를 이끌어 주시면서 마을 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감천문화마을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께서 안내해주시니 마을의 구석구석을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부터 지역 예술가들이 모여 마을의 빈집과 골목길에 예술작품을 설치한 예술 공간까지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내 공중목욕탕을 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한 '감내어울터'에서 전순선 주민협의회 부회장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감천문화마을 조성 과정과 마을 공동체 운영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마을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으며 앞으로 장생포 마을에서도 마을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도시재생 사례 견학을 통해 주민협의회 회원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 | 장생포 새들마을 소식지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 장생포 새들마을 소식지, 나도 한마디!

장생포 새들마을 소식지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합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 동네에 전해지는 이야기, 혼자 간직하고 있는 사진 등 이웃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장생포 새들마을 사업과 함께합니다.

남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장생포 새들마을 현장에서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들마을 사업의 내용 및 진행과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주민과 함께하는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지원센터"

TEL : 052-226-4867 / FAX : 052-226-4869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15(장생포동)